

오늘의 노인은 우리 미래의 모습, 노부모의 여생을 편안히 모셔드립니다

노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효손 재가(在家)노인복지상담소

노인문제.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제도가 바뀌고, 또 생활문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문제'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우리 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정과 사회를 곳곳까지 지켜온 분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의 특성상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본인들이 조부모를 모시고 극진히 부양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노후도

자녀에게 의탁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로 살아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들의 희생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가족에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노부모를 반드시 모셔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현대판 고려장이, 그동안 이 사회와 문화를 지탱해 준 '효' 사상의 변질과 함께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생을 부모와 자식의 그늘에서 희생해왔

던 우리네 노인들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도 혼자 움직일 수 있고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어서, 머느리 대신 아이라도 봐줄 수 있는 노인들은 아직은 다행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노인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노인들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족이나 이들 노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자원봉사자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을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 복지사회를 꿈꾸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는 전통적인 '효' 사상에 의지하려 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즉 이 문제는 이제 국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효손 노인재가복지상담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0-4)는 노인들의 수발을 들어드리고, 무료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히 해주고



노인가족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는데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크다.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지금까지 살아 온 지역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효손 재가노인복지상담소 정미영 소장의 설명이다.

정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효손'은 유료형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수발관리사의 모집과 교육, 활동관리, 노인상담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실비의 봉사료는 각 노인가정에서 수발관리사에게 전액을 직접 지불하게 되어 있다.

봉사자 파견 대상 가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거동불편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말벗, 식사수발, 잔심부름, 산책동행, 용변수발, 목욕 등을 도와준다. 비용은 시간당 3천원 정도.

지금까지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급 자원봉사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혜대상도 어려운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무급 자원봉사자의 활동 또한 봉사자 개인의 사정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실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 유급 수발관리사 파견사업이다.

한편 1996년부터 전국 32개 재가

노인복지사업 기관이 정부로부터 임금지원을 받는 유급가정봉사원을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저소득노인에게 파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임금을 지원하는 '서울가정도우미'를 동사무소 단위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파견하고 있다. 1993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유료형 복지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수혜자 부담으로 일반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효손'이 바로 이러한 유료형 복지사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효손을 통해 가정수발을 받기를 원하거나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02-508-8226으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월~금 09:00~18:00, 토 09:00~13:00). 국·공휴일은 휴무이다.

7 ▶

우리의 노부모들은 우리의 있게 해 주신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었다. 과거와 같은 형식으로서의 부모 봉양은 불가능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도 시급한 문제이다.

양로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 공경의 정신이 살아 있는 시점에서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인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가족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정수발관리사의 활동도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Z]

